



국방부 이어 해경까지 227억 '미지급' 단독 보도 관련,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 <'26. 1. 22.(목), 아시아투데이 >

- “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...정비창·함정 건조·VTS 등 대형사업 포함”
 - “해경 ‘미지급 아냐’ 해명...자료 설명엔 혼선”

□ 사실은 이렇습니다.

- 국가계약법상(제15조) 대가의 지급은 ‘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’ 이 원칙입니다.
- ※ 다만,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, 중도금(기성금)은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, 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.
-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따라서 '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(미지급)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대변인	책임자	과 장	총경 성대훈(032-835-2016)
		담당자	담 당	경정 문병창(032-835-2117)